

# 코로나19 국면 ‘탈’인류세 생태정치를 기획하기

이광석  
《문화/과학》 공동편집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변수

폭주하는 기관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창문 밖 저 멀리 뒤로 사라지는 풍광의 잔상을 쉽사리 기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가)속도 감각은 20세기초 미래파의 숭배 대상이었고, 자본주의 성장의 병참학(兵站學)과 늘 연결됐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간이정거장도 없이 하염없이 내달리는 자본주의 '설국열차'에 매달린 채 살아왔다. 이제까지 그 어떤 안팎의 저항이나 마찰도 이것의 질주 본능을 막아서질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세상을 일순간 정지시켰다. 소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이 자본주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웠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일상인 '뉴노멀'을 선사하고 있다.

1918년 유럽 전역을 휘감던 '스페인독감'이 20세기 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 재난이라 언급되지만, 오늘날 이만큼 인간에 큰 영향력과 무력감을 안긴 감염병의 재앙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는 그 속도와 여파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지구촌 전체를 무기력과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바이러스 감염 상태의 최고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그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직도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역사의 종말'이라 할만큼 굳건한 글로벌 체제로서 자본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팬데믹 앞에서 무력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생명 절멸의 '불타는 지구'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관성일까. 지구 생태 재앙은 이른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또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발발을 인간의 생태 교란과 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간과 동물 사이 접촉면이 늘어 생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즉 자연파괴로 인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 스스로 인간과의 밀접 환경 속에 적응해 자가 변이를 일으키고 인간을 새롭게 숙주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런 미생물 감염 바이러스의 전파 주거나 양상이 더 찾아지고 영향력 또한 갈수록 인간 사회에 치명적이라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현재 진행형의 코로나19를 비롯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불과 십 수 년 사이 우린 바이러스 감염병의 쓰나미를 제대로 맛보고 있다. 이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는 자본주의의 무차별한 자연개발, 생명과 환경 파괴, 공장식 가축농장의 비윤리적 사육 방식, 야생동물 식용거래 등에 기인한 바 크다. 즉 자본주의적 생태 파괴와 균열의 대가인 셈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쌓아올린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부산물이 지구 생명에 말기 판정을 내린 비공식 혁명, 소위 '인류세(anthropocene-人類世)'의 대표적인 생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인류세는 인간(the anthropos-)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면서 새롭게 지층에 퇴적된 문명 쓰레기더미의 지질학적 시대(-cene; epoch)를 이르는 말이다.<sup>1)</sup> 가령 흙이나 유기물과 뒤섞인 플라스틱 찌꺼기, 콘크리트 잔해, 혼합시멘트, 핵물질, 살충제, 금속성분, 비료 반응성 질소(N2), 온실가스 농축 효과의 부산물 등이 바로 인류세 퇴적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시대 지구 지질층을 일컫는 원래 학명인 '홀로세(holocene)'를 이 기고한 비공식 용어가 대체할 정도로, 인류세란 말은 마치 파국으로 치닫는 지구 시대의 종말을 카운트다운하기 위한 경고처럼 들린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대륙 곳곳이 사막화로 물이 메말라가고,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종이 끝없이 사라져가고, 갈 곳 잃은 쓰레기 노폐물은 쌓여가고 있었다. 핵폐기물과 오염수는 방치돼 생태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노출하고, 바다 생명들은 플라스틱에 질식해가고, 인간 자신의 섭생은 스스로 만든 각종 오염 화학물질로 위협받았다.

우리는 폭주하는 자본주의 기계의 광란을 잠시나마 찾아들게 한 미생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상황이 본격적인 지구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화급한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이 미생의 하찮은 존재가 질주 본능을 지닌 우리의 자본주의 기관차를 멈춰 세우면서 우리가 잊고 살거나 사사로이 여겼던 의미들에 하나둘 생기를 되찾아 준 까닭이다. 달리 보자면 코로나19가 인간 생명에 극도로 위협적이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촉매가 된 셈이다.

이 글은 오늘 코로나 충격을 인류세의 우울하면서도 강력한 징후로 읽을 것을 권한다. 그로부터 오늘의 인류세 위기 문제를

1) 이광석,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생태학적 전망」, 『문화/과학』, 97호(인류세 특집호), 2019, 22-54쪽 참고.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와 관련해 몇 가지 서로 다른 접근과 관점을 살핀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지구 생태 전환의 성찰적 실천 기획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 에코모더니즘의 주류 논의

오늘날 인류에게 코로나 충격의 궁극적 해법은 백신 접종뿐인가?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문제라면, 백신은 임시처방일 뿐 궁극의 해법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의 변종들과 또 다른 바이러스의 주기적 창궐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 이후를 대비할 ‘탈’인류세 기획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인류세 위기를 바라보고 적어도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입장들은 크게 몇 가지로 갈린다.

우선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개조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근시안적 논의가 있다. 소위 인간 이성과 ‘과학주의’를 맹신하는 부류다. 이들에게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인류세 위기는 궁극에 제어 가능하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현재 지구 위기가 인류의 오만에서 비롯된 결정적 증거로 보기 보단 지구를 새롭게 제어하려는 인간 문명 능력의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근거없고 위험하다. 자연 사물 통제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우위에 둔, 여전히 근대주의적 인식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지구 ‘회복력’이란 단순히 또 다른 과학기술적 도구를 고안해 땀질하는 방식이 아님을 외면하는데 있다.

지구 생태 위기를 또 다른 첨단 신기술과 과학의 세례로 덮으려는 기술 효능에 목마른 이들의 구상을 보라. 이들은 보통 ‘에코모더니스트’ 혹은 극단의 ‘과학주의자’로 불리고, 주류 사회 엘리트 논리이자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문제를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병폐로 보고, 또 다른 동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를 돌려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을 갖는다. 인간 과학기술의 자연 지배 욕망이 지구 생태 파괴의 현실로 드러난 오늘의 상황에서도, 이들은 반성적 자세보단 더 거대한 과학과 첨단 기술을 매개해 자연에 대한 인간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늘 피력한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고도 과학에 의해 생태위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실상 우리 의식에도 크게 스며들어 있다. 가령, 기후온난화의 해법으로 유황산화물의 에어로졸을 대기상층에 살포해 태양광을 차단하여 지구를 냉각하려는 지구공학적인 해결책을 보라.<sup>2)</sup> 이는 일종의 ‘태양 지구공학(solar geoengineering)’이라 불리는 환경공학적 해법에 해당하는데, 현재 지구 기온 상승 흐름을 뒤바꿀 인간의 대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다.<sup>3)</sup> 이 저렴한 국부수술식 인류세 위기 탈출법은 지구 기후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그 어떤 다른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모하다. 이들이 지닌 위험은 과학기술에 대한 과신과 오만을 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잘못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데 있다.

또 다르게, 생태 위기를 자본주의 사업화하는 이른바 ‘그린 워싱’ 경향 또한 존재한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연료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인류세 위기를 반사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환경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같은 ‘녹색성장주의자’들은 대개 기업 이익을 위해 환경을 명분으로 활용한다. 어찌보면 이들은 기후변화의 부정론자들에 가깝다. 위기로 이득만을 취하는 교활한 이들이다. 산업자본주의의 유물로서 탄소 배출이 지탄받는 것과 달리, 이들 신생의 그린 사업은 꽤 환경 친화적이고 진화된 테크놀로지로 포장되면서 또 다른 반생태적 효과를 은폐한다.

## ‘지구행성주의’의 정치생태학과 한계

다음으로, ‘인류세’ 논의를 생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주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린 이들 그룹을 ‘지구행성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지구행성주의적 관점은 어지간해선 인간에게 잘 반응하지 않던 지구가 계속해 인간에게 진노하며 파국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를 주목한다. 이들은 지구가 ‘나 좀 쳐다봐’라고 외칠 때, 이제부터라도 이를 단일의 생태 유기체적 탐구 대상으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환경주의자가 로컬의 생명 문제를 천착해왔다면, 지구행성주의는 로컬 환경주의로는 인류세 국면 대응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불타는 지구’에 동승한 운명 공동의 절멸 상태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빈부나 지위를 막론하고 급박한 파멸을 앞둔 지구행성에 올라탄 인간들이 죽기 살기로 탈출 방법을

2] Paul J. Crutzen, "Albedo Enhancement by Stratospheric Sulfur Injections: A Contribution to Resolve a Policy Dilemma?" *Climatic Change*, vol. 77 (2006), 211-219.

3] 「인류 종말을 겨누는 10가지... 누가 쓴 화살인가?」, 『한겨레』, 2018. 12. 26.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구 '종말론'적 긴급 상황에 내몰린다. 기술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동시대 지구의 전면화된 위기 상황의 급박함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묘사하기도 했다. 예컨대, 항공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착륙 장소를 찾아 헤매는 비행기 승객들, 전 지구적 위기에서 살아남겠다고 구명보트를 찾는 우리들, 집은 불에 타고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소방서에 전화해야 하나 망설이는 부질없는 인간의 모습,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down to Earth)”<sup>4)</sup> 등이 그것이다.<sup>5)</sup> 연료가 바닥난 비행기, 구멍 난 배, 이미 불타는 집의 비유들은, 계급이나 인종 등 어떠한 사회적 삶의 구속과 상관없이, 부자나 빈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공동 괴멸에 처한 급박한 인류 상황을 지칭한다. 동시에 그의 비유는 운명 동반자적 파국의 지구행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조금은 상투적으로 보이는 수사학적 강조들은, 이제까지 인간이 주목하지 못했거나 홀대했던 하나의 ‘에이전시(행위자)이자 유기적 시스템 총합으로서 ‘지구’ 그 자체를 통으로 읽어야 한다는 인간 시선의 ‘행성적’ 전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과 사물에만 익숙했었지, 전체 시스템으로서 지구 그 자체를 집중해 보는 데 소홀했다. 지구행성주의는 이렇듯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한 수탈돼온 지구란 공동 자연 자원의 관리 실패와 비극이 비수로 되돌아온 현실을 꾸짖는다. 지구행성적 시각은 지구 위기 사태의 급박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나름 강력한 경고 효과를 지니고, 지구 파국의 대비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구행성주의는 이로 인해 생태 위기의 즉각적 공동 대응을 자극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더 나아가 인식론적으로 보면, 행성적 시각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지구 생명들의 공동 운명과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생명과 사물의 관계 존재론적 양태를 강조하는데 이른다. 즉 지구행성주의는 자연스레 지구와 인간, 그리고 다른 (비)생명 종과의 평평하고 동일한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고 보는 ‘비(非)데카르트적’ 인간(사회)-자연 일원론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연결된다.<sup>6)</sup> 인류세론자들은 인간의 특권적 지위로 말미암은 만물 공존 질서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 종 스스로 지구

‘자연의 유기적 부분’이라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불안정하고 관계적 실체로서 인간의 파악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지구 사물들의 관계적 배치와 ‘물질성(materialities)’에 대해 주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알려진 것처럼, 영국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그의 가이아 가설에서 지구를 단순히 생명체를 지탱하는 암석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자가 진화하는 능동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이는 집합이자 거대 행위자인 지구에 대한 ‘생기론(生氣論)적’ 상상력을 극화한다.<sup>7)</sup> 지구행성주의와 연결된 ‘객체 지향’의 사물의 존재론은 이제까지 인간이 다른 종보다 특권적으로 누렸던 지구의 지배 지위를 탈피하도록 이끈다.

오늘날 지구 사물의 탈인간중심주의적 물질성에 착목하는 ‘신유물론’이라 불리는 철학과 접근은, 지구행성주의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고 있다. 신유물론은 ‘탈’인간중심주의, 관계적 물질성과 배치의 생태정치학, 자연-인간의 일원론, 비인간 존재인 사물들의 행위성(agency) 강조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삼으며 진화해왔다.<sup>8)</sup> 이와 같은 비데카르트적 일원론이 인류세적 맥락에서 갖는 효과는 꽤 분명하다. 신유물론적 지구행성주의는 인간 종의 특권적 자연 지배력을 배제하고, 인간 종 너머 이웃 종과 (기계)사물들과의 평등주의적 공생관계를 도모하고, 일종의 생명 거대 체계로서 지구 행위자에 대한 인류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자면,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언명한 대로, 인류는 이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체를 인간과 우리의 유전자적 이웃인 동물과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횡단체(a transversal entity)로 시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sup>9)</sup>

4) 브뤼노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박범순 역, 이음, 2021의 책 제목 인용.

5) 브뤼노 라투르-폴린 줄리에, 『[대담] 지중과 자연: 왜 인류세인가?』, 『오콜로』 7호, 2018, 86.

6) 김환석,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지평』 25호, 2018, 9.

7) ‘생기론(vitalism)’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유래하는데, 즉 일원론적 세계 속 모든 물질(자연)이 ‘자기생성적(autopoietic)’이고, 동시에 관계적 방식으로 서로 ‘공동생성적(sympoietic)’ 변화의 힘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생기론적 유물론은 인간-자연의 객체화된 분리나 그로부터 파생한 인간중심주의적 논리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 생기론적 접근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사유되던 생명 종 그리고 사물 범주와 영역을 가로질러 종 횡단의 변형력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 인간의 지위를 무수한 사물 중 하나에 둬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신생 유물론적 테제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신’유물론적 시각으로 보면, 인류세적 지구는 생기론적 사물의 집합이자 거대 행위자인 셈이다.

8) 김환석, 앞의 글, 6.

9)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109.



생명 공동체적 관점은 지구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그 안에 수없이 서로 다른 인간과 생명종들의 관계적 공존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의 맹점은 행성적 시선의 이격(좁아웃) 효과에 있다. 지구를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생명권으로 다루는 강점에 비해, 멀리서 바라보면서 인간들과 비인간 생명과 사물들의 차이나 구별을 소거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면 다채로운 사물들 사이 발생하는 무수한 ‘행위성의 분산’과 이들의 관계적 공존과 배치가 잘 드러날 수는 있다.<sup>10]</sup>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인해 인간이 만들어낸 생태 절멸의 상황을 집중하지 않은 채, 물질들의 연합된 행위성을 강조하면, 위기 책임 소재의 분산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역사 이래 누가 탐욕을 부려 멸종 위기를 불러왔는지 그 공과를 따지는 작업이 성길 수 있다. 자본주의 성장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거나 기후위기의 실제 주범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데, 신유물론적 지구 행성론은 무심할 수 있다. 위기의 책임 주체를 따지는 일은 원인의 확실한 제거와 미래 생태 전략을 담보하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결국, 행성적 사유는 모두 지구 생태계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공생을 강조하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할 내용을 (비)인간적 종과 사물들로 각개 분산시키면서 오늘 인류세 시대를 만든 주범인 인간의 역할이나 책임을 약화하거나 삭제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지구 위기의 과오를 따지기보단 주로 오늘의 인류세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인간의 탓이라 통친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의 생태분노로 인한 피해와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은 여전히 빈약한 환경 조건에 노출된 가난한 이들, 여성과 아이들, 동식물종들로 공식 기록되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해당 국가 정상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이제까지 지구행성 위기 테제는 인류 절멸의 거대 서사만을 전경화(前景化)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고통 받는 존재들을 우리 시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10]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 역, 현실문화, 2020, 76.

11] Andreas Malm, and Alf Hornborg, “The Geology of Mankind? A Critique of the Anthropocene Narrative,” *The Anthropocene Review*, 1, no. 1 (April 2014), 62–69 참고.

## ‘자본세’적 문제설정

지구생태와 종 절멸의 순간에조차 인간사회는 부유층과 특권층이 살아남을 구명보트나 탈출구가 아직은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인다. 인류세 논의가 인간사회 모든 곳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차별과 취약의 현실을 뻔뻔하게 외면한다는 좌파 생태주의자들의 비난이 그리 무도한 주장은 아닌 셈이다.<sup>11]</sup> 지구행성주의에 기댄 인류세의 추상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한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이나 온난화 가스 배출을 둘러싼 지리적·정치적 불평등을 인식하기 힘들게 할 가능성”을 지닌다.<sup>12]</sup> 인간 종 절멸의 공포를 자극하는 행성주의적 혹은 신유물론적 인류세 논의들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생태위기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은 무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다뤄질 공산이 크다. 즉 인류세 담론은 종 위기를 전 인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글로벌 자본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공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삭제하거나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치 시스템을 외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질적으로 인류세란 용어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정상적 발전과 성장 욕망에 대한 직접적 경고가 빠져 있다. 인류세에는 기실 오랜 시간 진행된 고약한 자본주의적 질곡들, 즉 자연의 개발과 수탈 과정, 생명 자연환경의 대기업 공장 경영, 토지 및 도시 공동 인프라 파괴, 인간 노동의 폐쇄화, 고도 자동화 기술권력 등이 얼룩져 있다. 이 점에서 지구 생태의 본질적 전환 없이, 그저 생태위기를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운명 공동체적 논의나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맹목은 순진하거나 허망해 보인다.

‘자본세(Capitalocene)’는 행성주의적 인류세에 대한 반발로 생성됐다. 이 개념은 급진 경제학자 데이비드 루치오(David Ruccio)가 처음 언급했고, 제이슨 무어나 안드레아 말름 등 일부 생태맑스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인류세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고안해냈다.<sup>13]</sup> 이들은 현재 지구 생태 위기 국면을 인류세가 아니라, 그 대신 ‘자본세’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구 표면을 얇은 그린막으로 묘사하기 보단 자본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음을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

12] Ibid., 65.

13] Jason W. Moore, ed.,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CA: PM Press, 2016.

특히 자본 권력의 생태 파괴 기제가 가장 큰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생태의 일부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생태인데, 이른바 권력과 자본, 자연을 통합하는 일단의 관계”인 것이다. 즉 ‘세계생태(world-ecology)’는 유무형의 “프런티어들을 통해서 끝없는 축적의 힘으로 견인되어 행성 전체로 팽창하는(자본주의적) 생태”에 해당한다.<sup>14)</sup>

‘자본세’론자들은, 인류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안된 신유물론과 행성주의적 사물들의 ‘분산 책임’론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핵심은 자본주의적 ‘세계생태’ 전략이라 여긴다. 즉 자본주의의 가없는 수탈 체제가 곧 지구 행성의 쓸모와 합일된 현 상태를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점에서 해러웨이의 ‘틀루세(Chthulucene)’라는 반성적 개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러웨이는 신유물론과 마찬가지로 다종적으로 무수히 교차하고 접 붙는(비)인간 “타자들과의 새로운 사회적 접속 형식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적 결합 관계”를 강조한다.<sup>15)</sup> 그러면서도, 그녀는 동시에 유전·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으로 인간 아닌 종까지 생성해 생명질서와 자연을 아예 개조하려는 사유화된 자본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해러웨이의 틀루세 논의는 인류세와 자본세의 문제의식을 합쳐, 새로운 ‘친족(kin)’들과 평등주의적 관계를 쌓아가는 ‘더하기’ 관점을 줄곧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류세 생태정치학은 위태로운 지구(비)인간 생명 약자들을 중심에 둔 새로운 지구 생태 전망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그 시나리오에는 인간 중심의 지구 구출 시나리오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현실에서 타자화된 인간 종을 비롯해 동물, 기계종, 돌연변이, 자연 사물을 살리는 공생공락의 차이 속 연대가 요구된다. 물론 지적된 바처럼, 지구행성 내 “인간과 자연계를 무차별적으로 휩쓰는 물질적 힘들” 사이에 생성된 평등주의적 비전이 잃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sup>16)</sup> 즉 생태 층위에 전면화하는 인간중심적 사물 설계와 자본의 세계생태 질서를 함께 포착해야 한다. 인간과 못 생명, 사물 사이의 평평한 존재론적 횡적 유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적 사유의 확장을 포용하면서도,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에 의해 뒤틀린 생태 균열의 내상과 생태 계급정치의 구도를 정확히 진단해 급진적 생태정치학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

코로나 충격으로 자본주의 기계들이 멈추면서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과 사태의 진실들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탄소배출의 주범이 된 중국 공장들이 멈춰서자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미세먼지가 크게 감소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사는 우리는 잠시나마 청명해진 하늘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관찰하고 초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관광객이 끊겨 정적이 감도는 태국의 타이 한복판에서는 굶주리고 난폭해진 수많은 원숭이 떼가 인간 대신 무리 지어 거리를 거닐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인도와 브라질 해변에서는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 수십만 마리가 평화롭게 산란을 하고 부화하는 흔치 않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인간이 황급히 숨은 자리에 어김없이 인간 아닌 생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일련의 지구 생명 활동은, 인간의 ‘생태 발자국’이 동물의 생활 반경을 얼마나 위협해왔는지 그리고 생명종 절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종적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자본주의의 뻘뻘한 민낯과 악취를 확실히 들춰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령, ‘저렴한 자연’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탈취와 자원 고갈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붙잡았다. 불안한 세계정세 속 불법 금광 채굴업자와 벌목업자들이 벌이는 아마존 밀림 수탈 과정이 확대일로에 이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그 와중에 이 간악한 업자들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주민들이 늘면서 사망자도 늘었다. 아마존 밀림의 수탈은 물론이고 수백억 부족민들이 공동체 절멸의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다. 결국, 바이러스 재앙은 여전히 신식민주의적 자연 수탈 욕망이 지구촌 가장 취약한 곳에서 끊임없이 꿈틀되고 있고, 이제는 그곳 원주민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뼈아픈 사실까지 들춰내고 있다.

캐나다 작가이자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이란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sup>17)</sup>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기나 재난 상황이 닥치면 이를 명분으로 국가 엘리트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던 것을 밀어붙인다는 이른바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가 코로나19 시대에 더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 재난 앞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늘

14) Raj Patel & Jason W. Moore, *History of the World in Seven Cheap Things: A Guide to Capitalism, Nature,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Verso, 2017, pp. 38-40.

15) Donna Haraway, “Anthropocene, Cap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vol. 6 (2015), 159-165.

16) 테리 이글턴, 『유물론』, 전대호 역, 2018, 25.

17)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NY: Penguin books, 2008.

동문서답으로 응하고 있으니, 어쩌면 재난자본주의는 꽤 적절한 개념인 듯싶다. 가령, 재난 상황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 감염 팬데믹을 빌미 삼아 국민의 생명안전이란 명분을 가져와 시민들에게 더 강도 높은 공권력을 행사하고 감시를 일상화한다. 우리와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에, 시장송배의 고위 엘리트들은 이른바 '녹색성장' 개발을 골몰한다. 환경재난 현실에 대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 다른 성장과 개발의 슬로건을 내걸고 폭주하는 기차에 다시 올라 타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 재앙 상황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다른 경로를 권유하지만,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sup>18)</sup>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란 말처럼, 우린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 바깥으로 빠져나올 어떤 구체적 실행의 시나리오를 아예 머릿속에서조차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미래 희망의 상상력 빈곤 속에서 살아왔다.<sup>19)</sup>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새로운 공생공락적 삶의 가치를 고민토록 이끌고 있다. 2020년 7월 (타임)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 7%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간접 효과를 얻었다. 일단 인류가 감염 공포로 인해 제조 공장의 가동을 일부 멈추고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얻는 즉각적 효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신종 바이러스의 이번 출현은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변종의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 창궐할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줬다. 전세계적으로 빈곤층, 난민, 도시노동자, 원주민 등이 '코로나19 난민'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비릿한 현실은 또 어떠한가. 오늘 비대면 사회의 강조는 새로운 필수노동자들의 잦은 접촉과 노동 활동에 의해서만 그 기반이 유지된다는 자본주의 물질세계의 원리를 뼈아프게 일깨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와 열강들의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구의 미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자명한 사실까지도 확인했다.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향후 10년 이내에 지구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탄소배출을 7%대로 낮춘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충격마냥, 향후 10년 동안 매해 지구에 이와 엇비슷한 수준의 '탈성장' 혹은 탄소기반 경제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린 무늬만 '그린뉴딜'이지 '기후 케인즈주의'와 '그린워싱'의 시장

변종들만을 고안해내고 있다.<sup>20)</sup> 지구온난화와 생태파괴의 가속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감염 바이러스들이 계속해 인간의 몸을 숙주삼아 기생하려 들 것인데도 말이다.

희망 없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파괴 욕망을 해체해 공생공락의 생태 대안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차원에서, 대도시들에서, 지역들에서,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 수준 모두에서 기획돼야 한다. 지구 구출의 극약 처방으로써 '그린뉴딜'에 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개발로 크게 균열들이 이뤄진 지구적 물질대사 능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 와서 문명의 이기를 완전히 폐절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생산력의 규모를 줄이고, 지금의 성장주의적 광란과 성장 중심의 가치 송배를 경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혹독한 재앙을 인류사적 교훈으로 삼는 일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그 어떤 반성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생태 재앙이 연이어 몰려들 것이다. 자본주의의 폭주하는 기관차를 완전히 멈춰 세울, 그리고 그 가속을 무력화할 다른 삶과 범 생명 공존의 기획이 필요하다.

18) 낸시 프레이저, 『남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책세상, 2021. 책제목 문구를 가져왔다.

19)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 대안은 없는가』, 박진철 역, 리시울, 2018.

20) '기후 케인즈주의'의 비유법은, John Bellamy Foster, "On Fire This Time," *Monthly Review* vol. 71, no. 6 (November 2019), pp. 1-17.